新羅末・高麗前期 淸州地域의 佛敎文化

-法相宗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金 春 實*

Ⅰ. 머리말
Ⅱ. 統一新羅 末期의 佛蹟
1. 佛蹟의 例
2. 統一新羅 末期 佛蹟의 특징
Ⅲ. 高麗 前期의 佛蹟
1. 佛蹟의 例
2. 高麗 前期 佛蹟의 특징
Ⅳ. 高麗 前期 忠北地域의 彌勒信仰 관련 佛蹟
Ⅴ. 龍華寺 石佛
Ⅵ. 맺음말

Ⅰ. 머리말

淸州地域의 新羅末・高麗前期의 시기는 이 지역의 문화가 그 특징을 보다 분명히 자리잡아 가는 시기로, 역사학계에서는 豪族勢力인 淸州金氏의 동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와 관련된 문헌자료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어서 신라말, 고려 전기의 청주지역 호족세력들의 분열 양상이나 청주 김씨의 등장, 이들 豪族의 高麗王室에서의 위상, 그리고 청주 김씨에 의한 청주지방의 지배 양상 등 비교적 소상히 다루어진 편이다.[1] 청주 김씨 세력의 불교 신앙에 관해서는 청주 김씨 가문에

* 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敎授

1) 金光洙, 1972.「羅末麗初의 地方學校問題」『韓國史硏究』7. ; 金杜珍, 1979.「高麗 光宗代 專制王權과 豪族」『韓國學報』15. ; 申虎澈, 1982.「弓裔의 政治的 性格」『韓國學報』29. ; 金甲童, 1985.「高麗建國期의 淸州勢力과 王建」『韓國史硏究』48. ; 朴敬子, 1986.「淸州豪族의 吏族化」

서 顯宗代 이후 3대에 걸쳐 法相宗 僧侶를 내는 것과 관련하여 高麗 前期 法相宗의 전개와 청주지역과의 관련이 검토되기도 하였다.[2] 이상의 연구들은 청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고려 전기의 政治史나 佛敎史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하나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한편 이 시기에 오면 당시의 물적 증거인 佛敎 관계 遺蹟이나 遺物들도 많이 남아 있어서 위의 문헌사학계의 연구 성과들을 이들 유물의 해석에 반영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을 이들 유물들이 설명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당시의 역사와 문화는 보다 풍부하게 복원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청주지역의 불교유적, 유물들을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전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통일신라시대 5소경의 하나인 서원경으로서의 불교문화와 고려시대의 불교문화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 각기 雲泉洞地域, 牛岩山地域의 佛蹟들, 그리고 龍頭寺 鐵幢竿, 龍華寺 石佛 등을 중심으로 불교문화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고려시대 초기의 법상종의 전개에 있어 청주지역의 역할 가능성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데,[3] 청주 김씨와 관련된 龍頭寺나 법상종 관련 사찰인 俗離寺나 金山寺, 玄化寺 등 그 어느 곳에도 당시의 본존 불상이 현존하고 있지 않아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관련 유물들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Ⅱ. 統一新羅 末期의 佛蹟

통일신라시대 청주지역의 불적은 통일 초(神文王 5년, 685) 西原小京이 설치된 이후의 사정을 대변하는 雲泉洞 寺蹟碑(668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라 말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청주지역의 佛事는 주로 下代에 와서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운천동과 우암산 양 지역에 주로 분포되고 있다. 이들 유물들을 검토하여 통일신라 말기 청주지역의 불교문화의 성격을 밝혀 보고자 한다.

『院友論叢』4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金周成, 1988.「高麗初 淸州地方의 豪族」『韓國史硏究』61・62. ; 申虎澈, 1993.12.「後三國 建國勢力과 淸州 地方勢力」『湖西文化硏究』11. ; 李惠善, 1996. 12.「<龍頭寺址 鐵幢記>에 보이는 高麗初 淸州 豪族」『湖西文化硏究』14.

2) 토니노 푸지오니, 1996.「高麗時代 法相宗 敎團의 推移」(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5. ; 金壽泰, 1997.12.「新羅末・高麗前期 淸州金氏와 法相宗」『中原文化論叢』1. 한편 龍頭寺幢竿記에 등장하는 釋希 侍郎이 忠州 淨土寺 法鏡大師碑의 陰記에 玄暉의 단월로 나오는 점을 주목하여 禪宗과의 관련을 언급한 의견도 있다. (이혜선, 1996. 앞 글, 187~188)

3) 金壽泰, 위 글.

1. 佛蹟의 例

가. 雲泉洞寺址

무심천변의 서안인 운천동 일대는 우암산 지역과 더불어 청주 불교문화의 전개에 있어서 역사가 매우 올라가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寺蹟碑가 발견된 산직말사지와 이곳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雲泉洞寺址, 그리고 直指心經이 인쇄되었던 興德寺址 등은 모두 이 일대에 인접해 있다. 寺蹟碑의 발견으로 보아 이 일대는 西原小京이 설치되었던 통일신라 초반까지 소급되는 청주의 오래된 불교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雲泉洞寺址는 이미 1970년에 銅鍾 안에 金銅菩薩立像, 己丑銘 金鼓 등이 들어있는 일괄유물이 발견되면서 알려졌고, 1984년에는 발굴이 실시되어 일부 유구와 유물이 수습되었다. 그러나 유구가 심하게 교란되었고 명문 등이 있는 뚜렷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서 寺址의 성격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4] 그러나 雲泉洞寺址 출토 금속유물들 중에는 제작시기가 통일신라시대로 올라가는 예들이 있어서 절의 창건은 이미 통일신라시대로 소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金銅菩薩立像은 크기 10㎝의 작은 보살입상으로 높은 보계에 보관을 쓰고 있으며 왼손에는 정병을 받쳐들고 있다. 천의는 가슴에 사선으로 걸치고 양팔에 감겨져 몸 옆으로 늘어지고 있다. 얼굴과 몸에 양감이 있으며 허리와 다리의 선이 곡선적으로 드러나는 등 조각이 소략한 감이 있으나 통일신라 8세기 대의 보살상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5](도 1)

銅鐘은 높이가 64㎝, 구경 47㎝의 비교적 큰 크기의 종으로 통일신라 동종의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6](도 2) 종의 외관의 선이 유연하며 위에는 다소 작아 보이는 용뉴가 달려 있다. 특히 종신과 유곽대의 둥근 반원형 안에 장식되어 있는 비천의 모습은 상원사 동종이나 실상사 동종과 같은 통일신라 범종들에서 보이는 비천들과 비교된다. 이와같은 세부적인 특징으로 보건대 이 동종의 연대는 9세기로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운천동사지에서는 고려시대의 유물인 「己巳」명 금고, 소형의 향로, 사자형 청동향로다리, 그리고 원풍통감(元豊 : 宋의 神宗代 연호, 1078～1085)과 상평통보 등의

---

4) 청주대학교 박물관, 1985.『淸州雲泉洞寺址 發掘調査報告書』. 발굴자는 특히 출토된 도가니편으로 해서 이웃한 흥덕사지와 연관지어 그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5) 金永培, 1970.3.「淸州雲泉洞出土 金銅菩薩立像과 銅鍾」『考古美術』105, 19～21.

6) 黃壽永, 1972.6.「新羅, 高麗 梵鍾의 新例 (2)」『考古美術』113・114, 19～26. 貞元銘 禪林院鍾이나 日本 出雲 光明寺에 전하는 新羅鍾과 비교하여 9세기의 新羅鍾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전과 다양한 와전류가 출토되어 이 절이 고려시대에도 번성했음을 알 수 있다.

나. 龍岩寺 石造毘盧舍那佛坐像

용암사가 위치한 우암산 지역에는 토축산성지와 많은 불적들이 남아 있는데, 특히 통일신라시대 서원경의 치소와 관련지어 주목되어 왔던 곳이다. 따라서 그 동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뚜렷하게 통일신라 상대까지 소급하는 유구나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다.[7] 용암사의 석조비로사나불좌상이나 탑동의 5층석탑 등은 우암산 지역의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불적이나 그 조성시기는 말기로 내려간다.

용암사의 석불좌상은 智拳印의 毘盧舍那佛像으로 광배만 없어졌을 뿐 불신과 대좌는 보존이 양호하다.(도 3) 통일신라 하대 불상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인 智拳印을 한 手印, 팽만감이 빠진 佛身의 추상적인 표현, 그리고 반대로 대좌는 화려하게 장식되는 특징들을 갖추고 있어서 제작시기는 9세기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대구 桐華寺 石佛坐像 같은 경상도 지역에서 유행한 석불상들과 관련을 보인다.(도 4) 청주 일원에서 이와같이 전형적인 통일신라 석불 양식을 따르고 있는 예는 드문 편인데, 이외에 청원군 남이면에 東華寺 石造毘盧舍那佛坐像이 있다.

다. 塔洞寺址 五層石塔

이 석탑은 원래 二重基壇의 5層石塔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현재는 上臺 甲石 이하의 기단부가 거의 결실되었고 塔身部만이 初層의 塔身石과 1・2・3・5층의 屋蓋石이 남아 있다.(도 5) 특히 초층탑신에는 불좌상이 부조되어 있는데 手印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西面은 降魔觸地印의 釋迦如來이고, 반대편 東面의 상은 왼손에 둥근 寶珠를 들은 藥師如來이다. 南面과 北面의 상은 智拳印 毘盧舍那佛과 說法印의 阿彌陀佛로 추정된다. 탑의 부재가 클 뿐 아니라 初層塔身의 四面에 浮彫된 불상의 조각이 웅건한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크고 기법이 훌륭했던 탑으로 짐작되며, 陳田寺址 三層石塔과 비교되는 통일신라 9세기 후반의 석탑으로 추정된다.

라. 大韓佛敎修道院의 石造臺座

대한불교수도원은 근래에 세워진 절이지만 절 주위에서 오래된 와편과 석조물들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옛 절터임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수습된 유물로는 현재 대웅전 앞에 옮겨 놓은 석조대좌와 주초석, 그리고 1979년 연화대좌의 주변 지하에서 발견되어 청주박물관으로 이관된 석불들이 있다. 이들 중 통일신라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것은 대형의 석조대좌로 수도원의 뒷편 계곡에서 파손된 채 전하던 것이다.(도 6) 현재

7)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0.『牛岩山地域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도 복원되지 않고 따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3단의 팔각연화대좌로 부재는 모두 전한다. 下臺石의 지름이 183cm 나 되는 대형의 대좌로, 龍岩寺 石造毘盧舍那佛의 下臺石이 94㎝인 것에 비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크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하대석에는 풍만한 단판 연화문이 둘러져 있고, 중대석의 8면에는 보주형의 안상이 음각되어 있다. 상대석은 일부가 땅에 묻혀 있어서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화려한 仰蓮이 장식되어 있다. 크기나 조각수법으로 보아 통일신라 말기의 대좌로 추정된다.

2. 統一新羅 末期 佛蹟의 특징

이상으로 통일신라 말기 청주지역의 불적의 예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종합하여 그 특징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청주지역의 통일신라시대 불적들은 대부분 말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智拳印의 毘盧舍那佛像이 조성되기는 하였지만 부도나 탑비 같은 선종 관련 유물은 한 점도 전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 또한 속리산과 연관된 법상종 관련 불적도 전혀 볼 수 없다. 이 점은 통일신라 말기까지 청주지역의 불교는 華嚴宗 같은 전통적인 敎宗의 영향하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되게 한다.

두 번째 특징은 청주지역의 불적들은 지방에서 조성된 것들이기는 하나 대체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중앙양식과 연결되고 있는 점이다. 불상의 경우 석불이 대부분이고 특히 대좌의 양식은 경상도 지역에서 유행한 신라 하대 양식과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특징은 통일신라 하대에 이르면 각 지방에서 철을 재료로 하여 나름의 지방색을 과시하는 개성적인 불상이 조성되는 점과 다른 점이다. 이 점은 청주지역이 지방 행정의 중심지로서 일정하게 중앙과 연결되어 있었던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 번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통일신라 말기 청주지역의 불교문화를 이웃한 같은 5소경의 하나인 忠州地域의 불교문화와 비교해 볼 때 유물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충주지역의 불적이 많이 소멸된 까닭도 있겠지만 충주지역에는 통일신라시대 말기의 불상이나 석탑으로 전하는 예가 없다. 이 점은 충북지역에서 청주가 보다 안정되게 수준 높은 문화의 저력을 형성하여 왔던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이상의 고찰로 보건대 청주지역은 통일신라 말기까지 다분히 신라의 중앙 문화의 범주에 있었다고 보여지며, 그 동안 지방 행정의 중심지로써 착실하게 성장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역사 발전의 과정은 다음 고려시대 초에 이르면 이미 청주에 학원이 성립되고 일정하게 지식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三國史記』「弓裔傳」에 보이는 弓裔가 鐵

原에 入都하며 淸州人戶一千을 이주시킨 배경에는 궁예가 일찍부터 청주와 관련을 맺고 있어서 확고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추정 외에도,[8] 청주가 당시 가지고 있던 문화역량을 높이 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9] 또한 궁예가 원주를 거쳐 명주에서도 활약한 것으로 보아, 그는 전통적으로 신라세가 강했던 지역을 활동 배경으로 삼은 듯 하다. 한편 청주 김씨들은 이와같은 문화역량을 배경으로 하면서 후삼국기의 혼란 속에서 왕건과의 관계로 성장하였고 이후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Ⅲ. 高麗 前期의 佛蹟

1. 佛蹟의 例

가. 龍頭寺 鐵製幢竿

청주지역에서 고려시대 전기를 대표하는 유적은 용두사의 철제당간이다.(도 7) 철제당간은 현재 20단 남아 있고, 아래로부터 3번째 철통에 峻豊 3年(高麗 光宗 13년, 962년)銘의 鑄成記가 양각되어 있다. 따라서 용두사의 창건은 당간의 주성에 조금 앞선 고려 초로 추정된다. 주성기에 의해 이 당간은 청주의 호족인 金芮宗, 金希一 형제 양가의 발원에 의해서 세워졌고, 원래는 30단의 철통으로 60척의 높이였음을 알 수 있다. 철제당간이 고려전기 청주를 대표하는 유적이듯이 이를 세운 청주 김씨는 당시 청주를 대표하는 호족이었다. 청주 김씨는 고려사의 초기 기록에도 여러 곳 등장하여 그 동향이 파악되고 있는데, 신라 말 고려 초기의 혼란 속에서 왕건과의 관계로 성장하였고 이후 중앙으로 진출하고 있다.[10]

이와같이 용두사와 청주 김씨 호족 세력은 고려시대 전반 청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중심 내용이다. 특히 청주 김씨의 불교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두사의 성격이 밝혀져야 하는데, 용두사는 이미 고려말에 폐사된 듯하고 현재는 철제당간 외에는 유구나 유물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또한 당간의 주성기에는 용두사의 신앙 내용을 밝혀주는 귀절이 없어서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런데 철당간의 음기에 나오는 金寬謙과 관련하여 당시 중앙에서 활약한 청주김씨인 金勤謙 가문에서 顯宗代 이후 3대에 걸쳐 英念, 順眞, 德謙 등 玄化寺 주지를 지내

8) 申虎澈, 1993.12. 앞 글, 75~80.
9) 金光洙, 1972. 앞 글, 121.
10) 註1) 참조.

는 법상종 승려가 나오고 있다거나,[11] 고려 文宗, 宣宗 년간에 법상종의 승려인 祐祥이 용두사에 거주하였던 사실과 관련하여 용두사를 법상종계 사찰로 보는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12] 한편 祐祥 다음에 활동하는 법상종 승려인 義光(1107~1157)도 仁宗 19년(1141)에 용두사의 주지를 역임하는 기록이 있어서 용두사는 분명 법상종계 사찰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13]

사찰의 유물에 있어서도 고려시대의 대표적 법상종 사찰인 법주사와 안성의 칠장사에 모두 철제당간이 전하고 있는데, 이 점은 더욱 용두사가 창건 초기부터 법상종계 사찰이었던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도 8)

한편『忠淸道邑誌』淸州牧 古蹟條에는 당시 땅속에서 大安 6年銘의 龍頭寺錦口를 얻어 보살사로 이관된 내용이 나오는데,[14] 大安 6年이 宣宗 7년(1090)이 맞는다면 이 연대는 바로 祐祥이 용두사에 거주하던 시기와 비슷하므로 당시에 조성된 금구가 아닌가 생각되게 한다. 이 금구는 현재 전하고 있지 않다.

용두사의 폐사는『新增東國與地勝覽』卷15, 淸州牧 古蹟條에 鐵幢竿이 있는 용두사가 이미 폐사되었다고 하고 있으니, 조선 전기에는 확실히 폐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15]

나. 興德寺址

청주시 운천동에 위치한 절터로 1985년에「興德寺」銘이 있는 禁口(1254년)와 佛鉢이 출토됨으로써 이곳이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물인『佛祖直指心體要節』(1377년)을 찍어낸 淸州牧 興德寺址임이 밝혀졌다.[16](도 9) 인근한 곳에 雲泉洞寺址와 思惱寺 유물이 출토된 곳이 있어서, 운천동 일대는 통일신라시대 이래 사찰의 밀집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홍덕사지의 가람배치는 대체로 남향의 단탑가람으로 중심축에 중문, 탑, 금당, 강당

---

11) 朴敬子, 1986. 앞 글, 231~233.

12) 祐祥은 大覺國師에게 유식학을 가르쳐 준 사람으로 海麟의 비문에 제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후 講主로써 청주 용두사에 거주하였고 宣宗代(1084~1094) 말이나 肅宗(1095~1105) 初에 별세하고 있다(義天,「祭龍頭寺祐祥大師文」『大覺國師文集』卷16 ; 토니노 푸지오니, 1996. 앞 글, 49~55 재인용).

13)「金義光墓誌銘」『韓國金石文追補』, 144.

14) 大安 6년을 宣宗 7년 (1090)으로 추정하는 견해와(李惠善, 1996.12. 앞 글, 186. 註11) 참조), 高宗 元年(1214)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93.『淸州市歷史遺蹟』, 172).

15)『新增東國與地勝覽』卷15, 淸州牧 古蹟條 鴨脚樹의 기사 중에 현재 철당간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압각수가 고려말에는 감영안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서, 용두사는 이미 고려말에는 폐사되고 그 자리에 감영이 들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6) 청주대학교 박물관, 1986.『淸州興德寺址 發掘調査報告書』.

이 있고 회랑이 돌려진 신라시대의 전통 가람배치를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大中三年」銘(신라 文聖王 11년, 849)의 기와도 출토되어서 창건은 이미 신라시대로 소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출토유물은 다량의 와전류와 금속류인데, 와전류는 발굴에 의해 원위치에서 수습된 것이지만 금속류는 대부분 사지에서 반출되어 나간 흙더미 속에서 수습된 것이어서 유적과의 관련성이 고찰되지 않았다. 금속류 유물로는 금구 3점을 비롯하여 청동소종, 금강저, 청동용두, 청동발, 철제나발 등이 있다.

이들 興德寺址 출토의 금속유물들은 대부분 高麗時代 후기로 내려가는 유물들이어서[17] 『佛祖直指心體要節』(1377년)을 찍어낼 당시의 연대와 대체로 부합된다. 청동소종은 용통 위에 5개의 구슬장식이 있고, 종신의 견부에 삼산형의 입화장식이 있으며, 유곽 사이사이에 구름을 타고 있는 보살좌상이 장식되어 있는 등 전형적인 고려 후기 소종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홍덕사지출토 금속유물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鐵製螺髮片이다.(도 10) 금당지 중심부 불상대좌의 지대석이 놓였던 자리에서 8편이 수습되었는데, 이로써 금당에 모셔졌던 불상이 철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발 1개의 크기가 3.6㎝ 정도의 대형으로 소라형이며 머리카락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로 짐작컨대 불상의 전체 크기는 대형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고려시대의 사찰에서 주존으로 많이 모셔졌던 鐵佛이 이곳 홍덕사에도 봉안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홍덕사에 관한 기록은 마침 고려 후기 법상종의 고승인 惠永의 비문인 「大邱桐華寺弘眞國尊眞應塔碑」에 惠永이 17세(1245년)에 승과에 합격하고 처음으로 홍덕사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어 용두사와 더불어 법상종계 사찰로 알려지고 있다.[18] 이 비문에 의하면 惠永(1228～1294)은 문경군 출신으로 그 후 高宗 46년(1259)에 삼중대사의 법계를 받고, 元宗 8년(1267년)에는 俗離寺의 주지로 임명되며, 충렬왕 11년(1285)에는 瑜伽寺의 주지를 맡고, 桐華寺에서 입적하는 등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법상종 승려의 행적을 보인다. 그는 충렬왕 16년(1290)에는 寫經僧 100여명을 데리고 중국에 건너가 元 世祖에게 『金字法華經』을 바쳐서 유명해졌다고 하니, 홍덕사의 불경 인쇄는 당시 법상종 사원의 寫經 전통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13세기 중엽경으로 추정되고 있는 「甲寅五月 日 西原部興德寺 禁口壹坐改造入重參拾貳斤印」銘의 禁口는[19] 그 연대가 고종 41년(1254년)이 되므로 바로 惠永이 홍덕사에 머물렀을 즈음에 주조된 금구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17) 興德寺址 出土 金鼓들의 연대는 양식고찰에 의해 13세기 중엽경으로 추정되고 있다(崔應天, 1987.「高麗時代 靑銅金鼓의 硏究」(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80～82).
18) 李智冠, 1997.『譯註歷代高僧碑文 -高麗編-』4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89～290.
19) 註17) 참조.

이와같이 흥덕사의 예로 보아도 고려시대 청주의 불교문화는 법상종의 전통이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다. 菩薩寺

낙가산의 남쪽 기슭에 있으며, 현재까지 법등을 잇고 있는 청주시의 대표적 고찰이다. 보살사는 고려 초에 太祖의 아들인 證通大師가 중창하였다고 하는데, 그는 고려 초의 법상종 승려로 법주사의 중창에도 관여하고 있다.[20] 이로써 보살사 역시 법상종계 사찰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한 이미 신라 하대에 진표계 법상종이 속리산을 중심으로 청주지역에서 크게 유행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21] 한편『忠淸道邑誌』淸州牧 古蹟條에 당시 땅속에서 나온 大安 6年銘의 龍頭寺 錦口가 보살사로 이관된 내용이 있는데, 이로 보아도 용두사와 보살사는 같은 종파의 사찰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1988년에 파괴되어 매몰된「菩薩寺 重修碑」에 의하면, 고려 공민왕대(1352~1374)에 土田이 하사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또 조선 세조 4년(1458)에 어명으로 중수되었고, 그 후 벽암대사의 제자 瓊特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22] 한편 高麗末의 吏讀文書로 菩薩寺와 주변 사찰과의 토지분쟁을 고려 왕실에서 해결해 주는 내용이 있는 예도 전하고 있다.[23] 또한 중수비는 조선 숙종 9년(1683)에 건립된 것이어서 이때 다시 보살사를 크게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여지도서』를 포함한 조선시대의 각종 지리지에 보살사가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조선시대에는 청주를 대표하는 사찰이었다. 이로 보건대 보살사는 특이하게도 고려 초 이후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법등을 이어왔던 절임을 알 수 있다.

경내에는 極樂寶殿을 비롯하여, 塑造阿彌陀三尊佛像,「康熙癸未」라는 음기가 있는 5층석탑, 石造二佛幷立像, 石造地藏菩薩坐像, 掛佛 등의 많은 문화재가 전하고 있다. 이들 유물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중기 중창 이후의 것들이고, 고려시대와 연관되는 유물은 석조이불병입상, 석조지장보살좌상이 있다. 두 불상은 1972년 보살사 경내에서 발견되어 현재 극락보전에 함께 봉안되어 있고, 두 상의 돌의 재질과 양식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함께 조성된 불상들로 추정된다.(도 11, 12)

석조이불병입상은 한 광배 안에 여래입상이 2구 나란히 부조된 특이한 형식의 상이다. 두 여래상은 거의 같은 모습인데 수인만 서로 반대여서 대칭을 이룬다. 전체적으로 머리가 크고 키가 짝달막하여 귀여운 동형불의 특징을 보인다. 석조지장보살좌상은 민

20) 權相老, 1979.『韓國寺刹全書』上卷 (동국대학교 출판부), 469.
21) 토니노 푸지오니, 1996. 앞 글, 15 ; 金壽泰, 1997.12. 앞 글, 22.
23) 충청북도, 1982.『寺誌』, 59~67.
23) 許興植, 1985.「1349年 淸州牧官의 吏讀文書」『韓國學報』38. (『高麗佛敎史硏究』일조각, 1986.에 재수록)

머리의 보살상으로 지물은 들고 있지 않다. 길죽한 얼굴의 표현이나 옷주름의 조각수법이 이불병입상과 같다.

두 불상의 신앙 배경은 잘 알 수 없으나, 지장상의 경우는 속리산 법주사의 마애불에서도 그 예가 보여서 진표계 법상종과 관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라. 思惱寺

1993년 10월 용화사에서 100여m 정도 떨어진 무심천변의 제방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전주를 이설하던 중에 「思惱寺」銘 半子를 포함한 고려시대의 일괄 금속유물이 다량 발견되면서 주목된 절이다. 이들 유물들은 대형의 금동광배편을 위시하여 소종, 향로, 촛대, 숟가락, 금강령, 주자 등 다양한데, 사찰에서 직접 쓰던 것으로 보여진다.(도 13) 모두 378점으로 보고자는 고려시대 이외의 유물은 한 점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24]

사뇌사에 관한 기록은 『曹溪眞覺國師語錄』에 진각국사가 西原部 思惱寺에서 夏安居하였다는 기록이 보여서 고려시대에 청주에 있던 또 하나의 대찰로 생각된다. 그리고 眞覺國師 慧諶은 고려 후기 知訥을 이은 曹溪宗의 2祖여서 思惱寺는 禪宗 사찰로 생각된다.[25]

한편 사뇌사 출토 금속유물의 명문 중에는 「思惱寺」를 「思內寺」로 표현하고 있는 예도 있는데, 이들 思惱, 思內의 표현은 바로 新羅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흥미롭다. 鄕歌를 詞腦歌, 思內歌로 부르고, 思內琴(신라시대의 악기), 思內舞(신라시대의 가무), 思內樂(신라시대의 가악) 등의 표현도 있어서 思惱寺는 바로 신라시대 이래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절을 일상적으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더욱 이들 일괄 유물이 발견된 운천동 일대는 앞서 통일신라시대의 사적비가 발견된 곳이고, 또 동종이 출토된 운천동사지도 이웃하고 있어서 그러한 연관성을 더욱 생각하게 한다.

마. 淸華寺 石造毘盧舍那佛坐像

머리에 보관을 쓴 보살형의 비로자나불좌상이라는 점에서 특이한 불상인데, 출토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도 14) 보관을 쓰고 있는 비로자나불의 예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편인데, 대구 동화사의 비로암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사리함에 선각된 비로자나불좌상은 가장 비교되는 예이다. 제작시기는 양식적으로 고려 초 정도로 추정된다.

바. 井下洞 磨崖毘盧舍那佛坐像

---

24) 金弘柱, 1993.12.「淸州社稷洞出土 思惱寺銘半子」『美術資料』52, 168~175.

25) 眞覺國師의 탑비는 승주 月南寺址에서 전하고 있다.(閔賢九, 1973.10.「月南寺址 眞覺國師碑의 陰記에 대한 一考察 -高麗武臣政權과 曹溪宗- 」『震檀學報』36, 5~38.)

돌출된 판석형의 바위면에 선각에 가깝게 부조된 비로자나불좌상이다.(도 15) 전체적으로 불신의 구조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대의의 옷주름과 연화좌의 선이 유려한 상이다. 조성시기는 얼굴이나 옷주름선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사. 牧岩寺 石造如來立像

목암사는 최근에 세워진 작은 암자이고, 이 근처는『舊淸州邑誌』에 기록되어 있는 牧牛寺址로 추정되고 있다. 원사지에 높이 3~4m의 석축대가 남아있다.

석불입상의 머리는 최근에 후보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보존이 양호하다. 법의는 통견으로 가슴이 깊게 벌어졌으며 배에 나비모양의 띠매듭이 보인다. 대의의 주름은 등간격의 선으로 밀집되게 표현되어 있고, 양다리에 각기 둥글게 감고 있는 옷주름이 특징적이다. 수인은 전법륜인으로 여래입상에서는 그 예가 드문 편이다. 전법륜인을 취하고 있는 손의 표현도 매우 자연스러워서 이 불상의 조각이 훌륭함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 여래입상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고려 전반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2. 高麗 前期 佛蹟의 특징

高麗 前期 청주지역의 佛蹟들을 살펴보면, 현재의 청주를 대표하는 문화는 이 시기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자리잡아 갔음을 볼 수 있다. 앞 시기인 통일신라시대에 이어 운천동지역과 우암산 지역은 여전히 불교의 중심지역으로 자리잡고 있고,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새로이 부각되는 사찰은 龍頭寺와 菩薩寺이다. 용두사는 당시 청주를 지배했던 淸州金氏 豪族들에 의해서 세워진 순수한 지방사찰이라면, 보살사는 태조의 아들인 證通國師에 의해서 중창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왕실의 후원을 받았던 사찰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불적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고려 전기 청주를 대표하는 불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龍頭寺이다. 용두사는 앞선 통일신라시대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특징을 보여 주는데, 이는 바로 고려시대에 새로이 전개되는 청주의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찰의 위치가 앞 시기와 달리 읍성의 안으로 들어와 중심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절의 佛事는 당간의 鑄成記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청주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청주 김씨 호족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들 청주 김씨들은 당간에 주성기를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적이고 학식을 갖춘 계층이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불교신앙은 이후 청주 김씨인 金勤謙 가문에서 法相宗의 高僧들이 배출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법상종 신앙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같은 특징은 이후 고려시대의 청주지역의 불교 문화의 성격을 규

정지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의 사실들은 바로 고려시대 전기에 청주김씨 호족들이 이 지역을 안정되게 지배하게 된 지배양상과 이들 지배세력들의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지배세력들의 지적인 면은 바로 앞 시기에 청주가 小京 지역으로서 갖고 있었던 높은 문화역량이 계승된 결과임이 분명하다.[26]

한편 청주지역의 불교 신앙은 청주 김씨와의 관련을 제외하고도 전통적으로 法相宗 신앙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게 하는 몇 가지 기록들이 있다.

먼저 고려 초에 菩薩寺가 태조의 아들이며 법상종 승려인 證通國師에 의해서 俗離寺와 더불어 중수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고려 왕실이 이미 이 지역의 법상종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三國遺事』義解 心地繼祖編에「金寬毅가 편찬한『王代宗錄』에 의하면 新羅末 大德 釋冲(忠)이 太祖에게 眞表의 袈裟와 戒簡子 189개를 바쳤다」는 기사가 주목된다. 釋冲은『三國史記』50, 弓裔傳에 보이는 궁예의 강설을 사설, 괴담이라고 하여 궁예에게 철퇴로 맞아 죽은 釋聰과 동일인으로 보고 있는데,[27] 속리산계의 법상종 승려로 추정되고 있다.[28] 이로 보건대 고려왕실은 이미 고려 초에 釋冲을 통해서도 속리산 주변의 법상종 신앙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 외에도 용두사에는 고려 후기에 祐祥, 義光 같은 법상종 승려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또한 흥덕사의 경우도 고려 후기 법상종의 고승인 惠永이 승과에 합격하고 처음으로 흥덕사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어서 용두사와 더불어 법상종 사찰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같이 청주를 대표하는 사찰인 용두사와 보살사, 흥덕사가 모두 법상종계 사찰이라고 하는 점은 고려시대 청주지역의 불교문화는 전반적으로 법상종 신앙의 범주에 있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도출시킨다.

고려시대 청주지역의 불교문화가 이처럼 법상종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통일신라시대 이래 법상종 신앙의 2대 중심지인 속리산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같은 배경으로 신라 하대에 이미 속리산의 眞表系 법상종이 청주지역에 영향을 미쳤고, 고려시대에는 玄化寺가 창건되는 顯宗代 이전 시기까지의 法相宗의 초기 전개에 있어 청주지역이 일정하게 역할을 하였

---

26) 金光洙, 1972. 앞 글. 龍頭寺 幢竿記의 분석을 통해 청주지방에는 자치적 교육기관인 學院이 이미 앞 시기부터 있어왔음을 제시하고 있다.

27) 申虎澈, 1982.「弓裔의 政治的 性格」『韓國學報』29, 50.

28) 趙仁成, 1996.12.「彌勒信仰과 新羅社會 -眞表의 彌勒信仰과 新羅末 農民蜂起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震檀學報』82, 41~45. 또한 釋冲을 청주 김씨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인물로 보는 의견도 있다(金壽泰, 1997.12. 앞 글, 25).

을 것이라고 보는 적극적인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29]

그러나 조형 유물 면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만한 예가 남아 있지 않다. 특히 신앙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당시의 本尊佛像의 경우 중심사찰인 法住寺나 金山寺, 그리고 龍頭寺 등 청주의 불적 그 어느 곳에도 남아 있지 않아서 이를 통한 비교 검토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다. 단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려 법상종의 대표 사찰인 법주사와 안성 칠장사에 鐵幢竿이 남아 있어서 상호 관련성을 언급할 수 있는 정도이다.[30]

그러나 법상종의 중심사찰인 법주사나 금산사의 본존 미륵불상이 대체로 어떠한 모습의 상이었는가는 짐작할 수 있다. 법주사의 본존불상은『東國輿地勝覽』권66, 報恩條나「俗離山大法住寺事蹟」에 의하면, 丈六의 銅佛로 조선시대 말기까지 전하다 1872년에 대원군이 경복궁을 지을 때 반출되어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법주사에는 마애불로 고려시대 중기로 추정되는 의좌상의 미륵불상과 지장보살좌상이 남아 있다.(도 16)

금산사의 경우는 통일신라시대의 거대한 佛立像의 石造臺座가 전하고 있는데,(도 17) 이로보아 금산사와 법주사의 본존 미륵불상은 통일신라시대 8세기 여래입상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거대한 입불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도 18) 현재에도 금산사와 법주사에는 거대한 여래입상형의 미륵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와같은 거대한 입불양식의 미륵불상이 청주지역의 법상종 사찰인 용두사와 보살사, 그리고 흥덕사에서도 봉안되었는지는 자료가 전혀 없어서 알 수 없다. 용두사의 경우는 거대한 철당간이 남아 있을 뿐이고 본존상과 관련된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단지 흥덕사의 경우 금당지 주변에서 철불의 나발편이 발견되어서 철불이 본존불상으로 봉안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고려시대 철불의 일반적인 예로 보아 좌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철불은 흥덕사지출토 금속유물들이 대부분 13세기 이후로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고려 후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불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살사에는 고려시대의 예로 작은 규모의 석조이불병입상과 지장보살좌상만이 전하고, 그 외의 대부분의 불적은 조선 숙종대 중창 이후의 것들이다.

한편 고려 顯宗代 이르면 개경에 玄化寺가 창건되면서 법상종이 전면에 부각되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당시 중심이 되었던 법상종의 사찰로써 현재 남한지역에 있어서

---

29) 金壽泰, 위 글. 일반적으로 顯宗代 玄化寺가 건립되기 이전 시기의 법상종은 주로 지방에서 명맥을 유지하였고, 그 신앙의 내용은 학구적이라기 보다는 실천, 참회에 중점을 두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토니노 푸지오니, 1996. 앞 글, 28~30).

30) 법주사의 鐵幢竿은 高麗 穆宗 9年(1006)에 50척의 높이로 건립되었으나 조선 高宗 3年(1866)에 미륵불상과 더불어 파괴되어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당간은 1973년에 옛 모습에 의거하여 건립된 것이다.

불적을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원주의 法泉寺와 안성의 七長寺가 있다. 이들 사찰들은 법상종의 중심사칠인 현화사의 주지를 지냈던 고승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절들이어서 가장 전성기의 유물들이 남아 있으며 당시의 영화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法泉寺와 玄化寺로 연결되는 海麟系의 법상종파는 고려 중기의 최대 문벌인 仁州李氏와 연결되는 계보이어서 가장 화려한 유물을 남기고 있는데, 玄化寺碑(현종 12년, 1021)와 法泉寺의 智光國師玄妙塔과 塔碑(1085년)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도 19, 20) 이들은 이미 고려 초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최전성기의 문화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玄化寺碑에는 顯宗이 이곳에서 국가의 안녕을 위해 彌勒法會를,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는 彌陀法會를 열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로 보아 당시 현화사에는 彌勒殿과 彌陀殿이 양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현화사의 법상종 신앙은 금산사나 법주사의 진표계 신앙과는 그 내용이 다소 달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31] 그러나 이곳의 주존불상도 전혀 전하고 있지 않아서 고려 중기의 대표적인 법상종 사찰의 본존불상의 모습은 알 수 없고, 따라서 초기 법주사나 금산사의 본존불상과의 관련도 전혀 살펴볼 수 없다.

七長寺는 鼎賢이 머물렀던 사찰인데 특히 청주출신의 법상종 승려들이 鼎賢의 계보여서 더욱 청주지역과 연결해 볼 수 있는 사찰이다.[32] 그런데 이곳에도 철당간이 전하고 있어서 양 지역의 연관성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칠장사에서 전하는 慧炤國師 鼎賢의 塔碑(1060)는 玄化寺碑나 智光國師 塔碑와 양식이 매우 유사하여, 고려 중기 법상종의 중심지역의 양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도 21)

이상으로 고려 전기 청주지역의 법상종과 관련된 유물들을 살펴보았는데, 철당간 외에는 전하는 유물이 많지 않아서 충분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한편 고려 전기의 청주지역에는 앞에서 살펴본 법상종 관련 사찰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불적들이 있다. 먼저 최근에 일괄 금속유물이 발견되어 주목된 思惱寺를 들 수 있다. 사뇌사출토 금속유물은 종류도 다양하고 또한 명문이 있는 예도 많아서 고려시대 청주에 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찰의 존재를 알려준다. 특히 사뇌사는 그 명칭에서 신라시대 이래의 전통을 암시하고 있고 또한 眞覺國師 慧諶이 夏安居를 한 禪宗寺刹이라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법상종계 사찰들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사찰로 보

31) 高麗 中期 法相宗의 동향은 크게 海麟系와 鼎賢系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신앙의 내용이나 계승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 일반적으로 海麟系의 법상종은 신라시대 太賢의 법상종을 계승하고, 鼎賢系는 眞表의 법상종을 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토니노 푸지오니, 1996. 앞 글 ; 金南允, 1992.「高麗中期 佛敎와 法相宗」『韓國史論』28. ; 金壽泰, 1997.12. 앞 글).

32) 鼎賢의 수좌가 바로 청주 김씨 출신의 英念이고, 英念의 법맥은 順眞에게, 그리고 德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다.

그 외에 보살형의 淸華寺 石造毘盧舍那佛坐像이나 井下洞 磨崖毘盧舍那佛坐像, 그리고 牧岩寺의 石造如來立像 등이 있는데, 지권인의 수인이나 양식으로 보아 이들 역시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불상들로 생각된다.

이로써 고려 전기 청주지역의 불교문화를 종합해 보면,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이 일부 이어지고 있지만 역시 龍頭寺를 중심으로 새롭게 부각된 法相宗 신앙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고려 중기 이후에는 중앙의 법상종 사찰에서 寫經이 매우 중요하게 행해지는데, 興德寺에서 금속인쇄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청주지역에서도 이와같은 높은 문화의 수준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청주의 불교문화는 지역문화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 전체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龍頭寺와 菩薩寺는 청주지역을 대표하는 법상종 사찰이었음이 분명한데 고려말에 이르러 용두사는 이미 폐사되어 그 영역이 관아로 바뀌는데 반하여, 보살사는 고려말 공민왕대에 왕실로부터 土田이 하사되고 있고, 또 朝鮮 世祖 4년(1458)에는 어명으로 중수되어 현재까지 법등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다. 용두사의 흥망은 결국 고려시대 청주 김씨의 성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Ⅳ. 高麗 前期 忠北地s域의 彌勒信仰 관련 佛蹟

앞장에서는 龍頭寺의 鐵幢竿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청주지역의 불교신앙을 법상종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중심이 되는 본존불상이 전하고 있지 않아서 존재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다. 이는 玄化寺가 창건되는 현종대 이전 시기까지의 法相宗의 초기 전개에 있어서 청주지역이 일정하게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이면서도, 이와같은 내용이 불교의 조형물을 통해서 적절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고려 초에 역시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조금은 형태를 달리하는 미륵신앙의 유물이 남아 있어서 주목된다. 즉 灌燭寺 石造菩薩立像이나 忠州 彌勒里寺址의 石佛立像, 그리고 鎭川 龍華寺의 石佛立像 같은 예들로, 巨佛의 석불인 관계로 다른 불상들에 비해서 비교적 남아 있는 예가 많은 편이다. 이 불상들은 통일신라시대의 사실적 양식의 여래입상들과는 달리 몸체가 긴 기둥 같이 추상적으로 표현된 불상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 불상들은 고려 초기의 대표적인 불상들로 거론되어 오기는 하지만, 관련 기록이 없는 관계로 그 조성 배경이나 신앙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 단지 이 불상들은 각지에서 彌勒佛로 불리고 있다는 점과 灌燭寺 佛像의

경우 光宗代에 慧明이라는 스님에 의해서 조성된 상이라는 정도가 언급되고 있다.(도 22)

그런데 이 巨佛들의 조성배경을 생각해 볼 때 그 규모로 보아 순수하게 지방민들의 힘에 의해서만은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이 불상들이 조성된 지역을 검토해 보면 대체로 고려 초에 각 지역에서 세력을 확보하고 있던 豪族들의 영역과 일치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따라서 오히려 豪族勢力이나 王室을 배경으로 조성된 불상들로 추정된다.

즉 거불의 조성은 바로 나말려초 호족들이 활거하였던 시대적 상황에서 조성배경을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고려 太祖代는 豪族聯合 정치시대라 할 수 있고, 光宗代는 강력한 王權 강화를 추진했던 시대로 奴婢按檢法이나, 科擧制度의 시행, 百官의 공복제정 등이 행해졌다. 이후 成宗代에는 전국에 12牧이 설치되면서(成宗 2년, 983) 각 지방에 지방관이 파견되고 지방의 호족들은 향리로써 편입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중앙집권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같은 시대 배경으로 보건대 고려 전기의 대표적 거불들은 대체로 지방의 호족세력들이 吏族化하는 성종대 이후에는 결코 조성될 수 없는 것으로써 고려 초반의 시대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 상들로 생각되는 것이다. 즉 忠州의 豪族과 彌勒里寺址의 石佛立像이, 그리고 鎭川의 호족과 진천의 龍華寺의 石佛立像이, 그리고 灌燭寺 불상과 光宗이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거불들이 조성시기가 대체로 고려 초로 한정되고, 또한 이 불상들이 미륵신앙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은 앞장에서 살펴본 현종대 이전의 법상종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즉 고려 초에 지방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법상종 관련 미륵신앙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忠州와 鎭川의 豪族들의 불교신앙은 관련된 기록이 적어서 淸州의 豪族들 만큼 그 신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는 않는다.[33]

한편 충청지역에서 유행된 석불들은 충남지역과 충북지역이 그 형식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충남지역의 상들이 대부분 菩薩立像들인데 반하여 충북지역의 석불들은 如來立像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충남지역 거불상의 양식을 주도하고 있는 灌燭寺石佛像의 경우 菩薩像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더러, 높은 寶冠의 형태나 착의법, 그리고 지물 등에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충북지역의 석불들은 물론 寶蓋 등의 새로운 형식이 첨가되기는 하지만 보다 전통적인 여래입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충북지역의 석불상들이 보다 법주사의 본존불상과 연관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충북지역의 석불상들

33) 忠州 劉氏의 경우는 淨土寺 法鏡大師碑의 음기에 단월로 등장하고 있고, 또는 興寧寺 獅子山門과도 관련을 보여서 禪宗과의 관련이 찾아진다.

을 살펴보면, 충주, 진천, 그리고 청주에서 석불이 전한다.

먼저 충주 원평리사지의 석불은 통일신라시대 여래입상의 전통을 잘 갖고 있는 상으로 나발의 머리 위에 팔각의 보개가 얹혀 있다. 미륵리사지의 석불은 추상화가 진행되어 기둥같은 길죽한 체구에 손에 보주를 들은 특이한 상이다.(도 23) 고려 초기 이곳 충주에는 호족세력으로 忠州劉氏가 득세하고 있었는데 광종의 외가이기도 하다. 광종은 이곳 충주에 어머니의 願刹로 崇善寺를 창건하기도 하였다. 미륵리사지의 석불은 아마도 이와같은 충주 유씨 호족세력과 왕실이 힘을 모아 국가의 안위를 빌며 창건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진천에는 거불의 龍華寺 石佛이 전하는데, 이곳 진천에는 鎭州 林氏 호족세력이 득세하였던 곳이다.(도 24) 진주 임씨의 임휘, 임명필 등은 태조 년간에 왕실의 외척의 하나였고 또한 병권을 쥐었던 호족들이다.[34]

청주에는 龍華寺에서 7체석불이 전하는데 도상이 혼란되어 있어서 양식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상들 보다는 조성시기가 내려가는 상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고찰로서 고려 초에 충북지역에서 유행하는 석불상들을 직접 속리산계의 법상종 신앙과 연결을 갖는 불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石佛像들은 고려 초의 중요한 불상들임이 분명하고, 아울러 가장 한국적으로 土着化된 佛像樣式을 보여주는 상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근거를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Ⅴ. 龍華寺 石佛

이제 龍華寺의 석불을 다루면서 고려시대 청주지역의 불적에 관한 고찰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 청주지역에는 龍頭寺를 중심으로 법상종 신앙이 유행한 것으로 보이나, 본존불상이 전하지 않아 그 모습을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속리산의 본존불상과 관련하여 고려 초의 거불들이 주목되었고, 그러한 거불의 예로 청주에는 용화사의 7체석불이 남아 있다.(도 25)

용화사 寺蹟記에 의하면, 절의 창건은 조선시대 말기인 光武 6년(1902)으로, 高宗의 妃인 嚴妃의 뜻에 의해 당시 군수였던 李熙復이 세운 것이라 한다. 석불에 관해서는 嚴妃의 꿈에 7체석불이 나타나서 절을 세워 달라고 하여 사람을 시켜 찾아보니 무심천가에 7체 석불이 있어, 이를 법당에 옮겨 안치하였다는 내용이 전한다.

---

34) 申虎澈, 1997.12.「高麗의 建國과 鎭州豪族 -鎭州 林氏의 역할을 중심으로-」『中原文化論叢』1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석불들은 여래입상 4구, 여래좌상 1구, 보살좌상 1구, 그리고 유마상으로 보이는 좌상 1구 등인데, 이 상들은 도상적으로 전혀 상호 연관을 지을 수 없어서 원래부터 7존불로 조성되었던 상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이 석불상들은 원래의 봉안 장소를 알 수 없고, 또한 불상의 도상과 양식도 매우 혼란된 지방적인 특징을 보여서 정확한 제작시기의 추정도 어렵다. 그러나 고려시대 후기 정도에는 조성된 상들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 巨佛인 3구의 여래입상이 가장 주목되는데, 머리는 모두 나발이고 육계가 있으나 1구는 육계가 높아서 마치 보살의 보계처럼 보인다. 대의는 通肩으로 2구는 가슴이 벌어져서 속에 내의가 보이고, 1구는 가슴을 완전히 덮었는데 가슴의 옷주름이 마치 꽃잎처럼 표현되고 있어서 토속화된 특징을 보인다. 이 가슴의 옷주름이 꽃잎처럼 장식된 여래상의 뒷면에는 僧像이 浮彫되어 있는데 매우 특이한 예이다. 手印은 2구는 施無畏 與願印을 취하고 있고, 1구는 여래상이면서도 특이하게 淨甁과 寶珠를 양손에 각기 들고 있어서 역시 지방색을 보인다.

이처럼 용화사의 석불들은 주존불상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없고, 표현 면에서는 지방색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거불의 여래입상들인 것으로 보아 앞에서 살펴본 청주지역의 법상종 신앙의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조성된 불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Ⅵ. 맺음말

본고에서는 新羅末・高麗前期의 淸州地域의 불교문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이 시기가 바로 청주지역의 문화가 그 특징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시기로써 당시의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의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들과 이들 佛蹟들을 상호 보완, 비교 검토하여 이 시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보다 넓혀보려고 노력하였다.

이로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統一新羅 末의 경우는 佛蹟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 시기의 변화 양상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高麗時代 前期의 경우는 오히려 비교적 관련된 문헌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이 시기 淸州金氏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 양상이나 청주김씨의 불교 신앙이 속리산계의 法相宗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연구 성과들은 이 시기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근간이 되었다.

이에 청주의 불적들을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는 통일

신라시대 西原京으로서의 불교문화와 고려시대의 불교문화가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각기 운천동지역, 우암산지역의 佛蹟들, 그리고 龍頭寺 鐵幢竿, 龍華寺 石佛 등을 중심으로 불교문화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통일신라 말기의 청주지역의 불교문화는 다분히 신라의 중앙 문화의 범주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다음 고려 초에 지방이면서도 龍頭寺의 幢竿記를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일정하게 높은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려 전기는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이 일부 이어지고 있지만 역시 龍頭寺, 興德寺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法相宗 신앙이 유행하였던 점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고려 말기 흥덕사에서 금속인쇄가 이루어졌던 점은 청주지역이 수준 높은 중앙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던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청주의 불교문화는 지역문화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 전체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려 전기 지방에서 존속했던 법상종의 미륵신앙과 관련하여 새롭게 충북지역에 남아 있는 巨佛들을 연결지어 보았다.

한편 이와같은 연구는 청주 지역의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나아가 高麗佛敎彫刻史 연구의 한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하여서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즉 청주 지역의 불교문화의 성격을 밝히는 것은 결국 高麗時代 法相宗의 미술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불교미술은 매우 복잡한 전개 양상을 보이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각기 지역별로 특징을 가지며 전개되는 양상이나, 고려시대 각 佛敎의 宗派들이 얽혀서 이루어내는 다양한 불교미술들은 그 이해를 매우 어렵게 한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과 종파를 연결지으며 佛蹟의 양식과 도상을 검토해 보는 일은 고려시대 조각사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